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3회차

2016년 11월 20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감독 확인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연습지나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공 통 문 항

<가> 민주주의에서 숭상해 마지않는 여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리프먼(Walter Lippmann)에 따르면, 흔히 여론으로 간주되는 것은 번쩍이는 이미지들의 결합, 표피적인 인상,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편견, 이기심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사람들의 세계와의 접촉은 간접적인 것이며, 그들은 무작위로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가 요구하는 스테레오타입에 따라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흔히 ‘정형화’로 번역되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용어는 인쇄에서 ‘연판인쇄(鉛版印刷)’를 가리키는 말인데, 리프먼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각과 정의를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폭넓게 공유된 기대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리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본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적합한 현실만을 만들어 내며,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릿속의 그림(the pictures inside our heads)’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인 것이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멀고, 일련의 이미지와 픽션들로 구성된 ‘유사환경(類似環境, pseudo-environment)’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이야기, 사진, 신문의 설명,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성한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실제 환경이 아니라 유사환경을 구성한다. 그런 유사환경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리프먼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언급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등 뒤에 불빛을 둔 채 묶여 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벽에 투영된 그림자들이 실제 모습들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세계를 하나의 그림자나 혹은 상(像)으로 이해한다. 이는 평균적인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필요로 한다.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진술은 범죄의 기능에 대한 뒤르켐(Emile Durkheim)의 주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뒤르켐에 의하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도덕을 강하게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사회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그 사회의 도덕적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도덕과 규범의 원리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는 범죄와 일탈을 필요로 하고, 범죄와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려 하는데, 베커(Howard S. Becker)는 그들을 국외자(outsiders)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국외자란 “타인들에게 일탈자라고 판정되어 집단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의 모임 밖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외자에 대한 판정은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본다. 따라서 보통 그 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국외자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방인은 외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우리의 도덕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매우 강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간주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경우에 이들을 국외자로 지목하려는 사회적 음모는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다.

<다> 0000년 0월 0일, A시(市) OO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 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벌인 일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모든 언론에서는 연일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몇몇 방송국에서는 긴급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급증하는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건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각종 SNS에서는 외국인 범죄 피해담과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넘쳐났다.

같은 달 O일, A시는 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범죄 예방 대책은 A시의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현황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현황 도표에서는 A시의 동별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외국인의 통계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을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이라고 공포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 왜 ‘우범’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지난 O월 O일 ‘시민과의 열린 대화’ 자리에서 A시의 시장이 한 말이라고 한다.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이니 범죄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일까. 그저 시장의 말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우범’ 지역 사이의 관계를 추측해볼 따름이다.

A시가 내놓은 예방대책은 어떠한가. 우선 각 동의 통·반장으로 구성된 주민 신고망을 대대적으로 활성화 지역 안전 불안요소에 대한 주민 신고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 내 불법 체류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예방 대책에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수입 감소, 지역민의 임대 수입 감소와 같은 내국인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만이 예상되고 있었다. 범죄 대책 어느 곳에서도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우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1.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을 비판하시오(<표 1>을 활용하되, A시의 범죄율은 전국 범죄율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1,000±100자)

<표 1> 전국 내국인과 체류 외국인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범죄(발생건수)	2,020,209	1,784,953	1,752,598	1,793,400	1,857,276
내국인(건수)	1,998,974	1,765,508	1,727,091	1,770,486	1,832,292
외국인(건수)	21,235	19,445	25,507	22,914	24,984
국내인구(만명)	4,918	4,941	4,977	5,000	5,022
체류외국인(만명)	117	126	140	145	158
내국인범죄율(A)*	4,064	3,573	3,470	3,541	3,649
외국인범죄율(B)*	1,817	1,542	1,828	1,586	1,585
B/A	44.7%	43.1%	52.7%	44.8%	43.4%

*범죄율: 10만 명당 피의자수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5), 체류외국인 통계연보; 경찰청(2015),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현황]

계 열 문 항

<가>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족하다. 글을 지으려 붓을 들기만 하면 옛말에 어떤 좋은 말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는가 억지로 경전의 그럴듯한 말을 뒤지면서 그 뜻을 빌려와 근엄하게 꾸미고 매 글자마다 엄숙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은, 마치 화공을 불러 초상화를 그릴 때 용모를 싹 고치고서 화공 앞에 앉아 있는 자와 같다. 눈을 뜨고 있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으며 옷의 주름은 짝 퍼져 있어 평상시 모습과 너무도 다르니 아무리 뛰어난 화공인들 그 참모습을 그려 낼 수 있겠는가.

글을 짓는 일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말이란 꼭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도(道)는 아주 미세한 데서 나뉜다. 도에 합당하다면 기와 조각이나 돌맹이인들 왜 버리겠는가. 이 때문에 도울(櫛)이 비록 흉악한 짐승이지만 초나라에서는 그것을 자기 나라 역사책의 이름으로 삼았고, 무덤을 도굴하는 자는 흉악한 도적이지만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는 이들을 자신의 역사책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글을 짓는 건 진실해야 한다. ... (중략) ...

꼭 이명(耳鳴)이나 코골이와 비슷하다.

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왜앵’하고 귀가 울자 ‘와!’하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옆의 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 이 소리 좀 들어봐! 내 귀에서 ‘왜앵’하는 소리가 난다.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황을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동글동글한 게 꼭 별 같단다.”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갖다 대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자, 아이는 답답해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다.

언젠가 어떤 시골 사람과 한 방에서 잤는데 그는 드르렁드르렁 몹시 코를 골았다. 그 소리는 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 쉬는 것 같기도 하고, 푸우하고 입으로 불을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글보글 솔이 끓는 것 같기도 하고, 빈 수레가 덜커덩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숨을 들이쉴 땐 툭질하는 소리 같고, 숨을 내쉴 땐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내가 흔들어 깨우자 발끈 성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적 없소이다!”

쫄쫄! 어찌 코와 귀에만 이런 병통이 있겠는가! 글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하다. 이명은 병이건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니 병이 아닌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코를 고는 것은 병이 아니건만 남이 흔들어 깨우면 골을 내니 병인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독자가 이 책을 하찮은 기와 조각이나 돌맹이처럼 여겨 버리지 않는다면 저 화공의 그림에서 흉악한 도적놈의 험상궂은 모습을 보게 되듯이 진실함을 볼 수 있으리니, 설사 이명은 듣지 못하더라도 나의 코골이를 일깨워 준다면 그것이 아마도 나의 본의(本意)일 것이다.

<나> 미국의 현대 미술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흔히 ‘미술계의 제임스딘’으로 표현된다. 1940년대 후반 그는 바닥에 펼친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붓는, 이른바 ‘드립 페인팅(Drip painting)’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서양 회화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미술가다. 그러나 폴록은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했다. ‘그린다’라는 회화의 고전적 임무를 내팽개친 채 우연성을 강조한 그의 작업 방식은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로 끊임없이 의심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의 무의식과 감성에만 몰두하느라 대상을 화면에서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일반인과 미술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벌려 놓았다는 비판도 늘 따라다녔다.

1950년 11월 20일자 『타임』에는 ‘빌어먹을 카오스(Chaos, damn it)’라는 제목으로 폴록의 작품에 대한 혹독한 비평의 기사가 실렸다. 폴록의 뿌리기 기법은 완전히 무의미한 혼돈의 극치, 다시 말해 ‘카오스 그 자체’라는 내용이었다. 평소 평론가들의 냉정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폴록은 다음 달 11일자 같은 잡지에 ‘카오스가 아니야!, 빌어먹을(No chaos, damn it)’이라는 제목으로 반박의 글을 썼다.

폴록이 사망한 지 40년이 지나 현대 물리학자들은 최신 물리학 이론으로 그의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폴록의 작품이 ‘카오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카오스’란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카오스가 아니다. 모든 자연 현상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특징 중 하나인 ‘카오스와 프랙털(Fractal)’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반영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잭슨 폴록의 드립 페인팅은 물리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고전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는 헛간 바닥에 커다란 캔버스를 깔고 천장에는 길이가 1~2미터 정도 되는 줄로 물감통을 매달았다. 물감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감이 흘러내리게 한 다음, 손이나 어깨 혹은 몸으로 물감통을 이리저리 치면서 물감통의 운동을 조절했다. 그러면 물감통에서 흘러내린 물감들이 바닥 캔버스에 알 수 없는 궤적들을 그리게 된다. 그는 추의 주기 운동에 몸으로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무의식적 몸놀림과 물감통의 흔들림이 빚어내는 그 궤적들 속에서 그는 무의식이 발현된 창조적인 이미지가 표현되길 희망했을 것이다.

리처드 테일러(Richard Taylor)는 먼저 컴퓨터로 스캔한 폴록의 그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폴록의 그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폴록이 자신의 몸으로 물감통을 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물감이 통에서 흘러내리는 운동이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다른 스케일로 그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것을 통해 폴록이 처음에 굵은 궤적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후, 수많은 자기 유사 구조의 궤적을 통해 그림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 갔다고 주장했다. 폴록의 그림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유사성을 직감적으로 이해한 폴록의 세밀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형태를 알 수 없는 그의 그림 안에는 물감의 점성과 흔들리는 물감통의 속도, 물감을 떨어뜨리는 각도와 높이 등이 만들어낸 정교한 자연의 패턴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다> 한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온 대입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작가인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가 풀어 본 것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였다. 그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며 쓴 소리를 했다. 작품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해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끊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 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쾃마퀴에 소음 부영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문제> 교내 축제에서 위의 시를 원작으로 한 무용을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무질서하게 춤을 추도록 합시다.
- ②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길거리가 느껴지도록 세트를 구성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사용합시다.
- ③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유리벽에 부딪히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면 원작의 내용이 잘 표현될 거예요. **[시인의 정답]**
- ④ 무대는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하되, 더운 느낌을 주는 조명을 사용하면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 ⑤ 처음에는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고, 마지막에는 검은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를 등장시키면 주제가 부각될 거예요. **[교육청 정답]**

2. <가>의 '이명'과 '코플이'가 비유하는 바를 풀이하고, 이를 <나>와 <다>에 나타난 각각의 갈등 상황에 선택적으로 대응시켜 그 관련성을 논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